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사회과학 분야 제2세대 동남아 지역연구자에 대한 심층 분석*

박 승 우**

I. 머리말

우리나라에도 명실 공히 ‘동남아 지역연구자’라 부를 만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늘 열대의 풍토병과 같은 일종의 열병을 앓고 있다. 이들은 몸은 비록 한국에 있어도 마음은 늘 남중국해 저 너머 남국에 머문다. 이들의 열병은 해마다 한두 차례 저 멀리 적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만 좀 누그러진다. 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북회귀선을 넘어 태양의 온기를 뜨겁게 느낄 때쯤이면, 이들은 비로소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안온함을 느낀다. 적도의 태양이 이글거리는 동남아의 대도시에서도 이들은 냉방이 잘 된 건물 안에서보다는 반팔 티셔츠에 샌들을 신고 숨이 턱턱 막히는 포도(鋪道)로 나섰을 때 더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꿈속에서도 이들(특히 심하게 열병을 앓고 있는 일부)은 방콕이나 싱가포르, 자카르타의 선술집에서, 또는 바탕가스 해변의 나무집이나 말라카 고성(古城)의 성벽 위에서 남십자성을 바라보며 한잔 술을 기울일지 모른다. 죽어서도 어찌면 이들의 영혼은 삼판에 몸을 신고 별이 쏟아지는 적도의 해안을 떠돌 것이다. 우

* 이 연구는 2007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swpark@yu.ac.kr

리는 이들을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자(Southeast Asianist)’라 부른다. 이 논문은 이들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 논문은 이들에 대한 보고서이면서, 동시에 지난 시절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에 대한 회고적(retrospective) 재평가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특히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자들, 그 중에서도 ‘제2세대(the 2nd generation)’로 분류할 수 있는, 1980년대 후반 이후에 등장한 동남아 지역연구자들을 세 개의 코호트(cohort, 기수(期數))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출신 학교와 전공, 학위논문의 주제 등을 코호트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들의 연구를 시기별로, 학문영역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경향과 시기별 추세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비록 부분적이긴 하나, 이들 각자의 생애사(life-history)를 더듬는 작업이기도 하다. 제2세대 동남아 지역연구자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동남아 지역연구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이를 서술하고 평가하며, 더 나아가 향후 동남아 지역연구의 발전을 위한 조그만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II. 연구의 배경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동남아 지역연구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¹⁾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 이후 더욱 탄력을 받고

1)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데에는 많은 연구자가 의견일치를 보인다(신윤환·이성형 1996; 오명석 외 2008; 전제성 2006; 조홍국 2001; 조홍국·오명석·박사명 1998).

있다. 이는 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지역연구가 1990년대 이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과는 대조적이다.²⁾ 최근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지역연구 특히 동남아에 대한 지역연구가 이처럼 활기를 보여주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학문(학계) 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학문 외적인 요소도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세계화(globalization)의 물결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역내 국가 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상호의존의 증대, 그리고 단일의 재화·용역·노동 시장의 탄생으로 나타나는—지역화(regionalization)를 견인해 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1997년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그리고 그해 말의 아세안+3의 출범 등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더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변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와 지역화의 한 단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의 증가, 내국인 출국자의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데,³⁾ 한국과 동남아 지역 간의 이러한 초국가적 인적 교류는 향후 더욱 더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2) 이러한 평가는 "Futures of Asian Studies," *Asian Studies Newsletter* (USA) Summer 1997: 7-12 (cited in Milner 1999)와 루스 맥베이(McVey 1998: 37)의 저작 등을 참조할 것. 맥베이의 견해에 관해서는 전제성(2006)도 지적한 바 있다.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호주에서는 아시아 지역연구가 여전히 강세라고 평가되며(Milner 1999), 일본 또한 1990년대부터 아시아 지역연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고 평가될 정도로 아시아에 대한 지역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다(Suehiro 1999).

3) 2007년 9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장기체류자의 수는 102만 명으로 이 중 동남아 지역주민이 전체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총 40만 9천 명으로 이 중 동남아 지역 근로자가 30.5%를 차지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 및 「국적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한편, 결혼 이민자의 경우 2007년 9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결혼 이민자의 수는 총 107,641명인데(이 중 여성이 94,966명), 이 중 베트남 20,236명을 비롯,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이상 4개국으로부터의 결혼 이민자(그 대부분이 여성)의 수가 28,338명으로 전체의 26.3%를 차지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별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초고령사회⁴⁾로 접어드는 2026년 이후부터는 우리 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청장년층 경제활동인구 5~6백만 명 정도가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야 하며, 이들 이민의 상당수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충원될 개연성이 높다. 이처럼 세계화와 지역화는 서로 대위법적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우리의 생활세계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변화를 추동해 내고 있다.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전망에 대해 회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에 하나의 공동체를 상상하게 만들기에 이르렀다. 동남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지역연구, 특히 동남아 지역연구의 발전에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⁵⁾

2. 연구의 대상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체 ‘동남아 지역연구자’의 수는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150 내지 16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언제 동남아 지역연구 분야에 입문(入門)했는가에 따라 두 개의 세대(世代)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동남아 지역연구에 입문’했다는 것은 아래에서 말하는 ‘동남아 지역연구자’로서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에 동남아 지역연구에 입문한 사람들을 제2세대로, 그 이전

4)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2025년 19.9%에서 2026년 20.8%로 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5) 일본에서도 1990년대 이후 동남아 지역연구가 새로이 부활하고 있다. 수에히로(Suehiro 1999: 167)는 “1990년대 들어 …… 일본에서의 아시아연구가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면서 “1990년대는 1960년대에 이어 일본에서의 두 번째 ‘아시아연구의 전성기’로 볼 수 있다.” 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에 입문한 사람들을 제1세대로 구분하고자 한다.⁶⁾ 제1세대의 연구자는 그 대부분이 60대 또는 그 이후의 연령대로, 최근에 은퇴했거나 아니면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 분들이다. 전체 동남아 지역연구자 중에서 현재에 활동(부분적으로)하고 있는 제1세대 연구자는 대략 20~25명 정도 된다. 제1세대 동남아시아 지역연구는 주로 비전공자에 의한 개관적 연구를 특징으로 하며, 그 연구 분야도 정치·경제와 국제관계에 국한되어 있었다(신윤환·이성형 1996; 전제성 2006).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동남아 지역연구의 씨앗을 뿌린 이들 제1세대 연구자들의 선구자적 공헌을 결코 가벼이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작업은 동남아 지역을 학계와 일반에 소개하는 데 국한되었으며, 본격적인 지역연구로 간주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다.

그 외에 제2세대 연구자 중에서 어문학⁷⁾ 전공자가 대략 25~30명 정도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되는 “제2세대 사회과학(역사학 포함) 분야 연구자”는 100명 남짓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자료 미공개 등의 사유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15 내지 20명 정도 되어,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자의 수는 총 84명이다.

한편, 우리가 본 연구에서 ‘동남아 지역연구 전문가’로 규정한 사람들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⁸⁾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동남아지역과 관련한 학위 논문

6) 아직까지는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자를 두 개의 세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인 것 같다(대표적인 예는 신윤환·이성형 1996; 조흥국 2001). 최근 전제성(2006)은 이를 세 개의 세대로 구분하려 시도하는데, 전제성이 말하는 제3세대는 본 연구에서는 제2세대의 제3코호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7) 이에는 동남아 각국의 언어, 언어학(linguistics), 문학 전공자가 다 포함된다. 단, 어문학자 중에서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업적을 내고 있는 이들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8) 이는 제1세대의 ‘동남아 지역연구자’를 규정하는 기준과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제1세대 동남아 지역연구자’로 포함하는 분들 중에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을 쓰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동남아 지역연구자로 간주한다. 우리의 분석대상이 되는 84명 중 대부분이 이 범주에 속한다. 둘째, 사회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수여자 중 그 학위논문이 동남아 지역연구와 무관한 경우라도, 이들이 '학위(석사 또는 박사)취득 이후 동남아 지역과 관련한 3개 이상의 주요 논문(학진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을 출간한 사람'도 동남아 지역연구자에 포함하였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의 '통합연구인력정보'에 공개된 각종 자료(연구업적뿐만 아니라 성·연령 등 개인적 기초사항, 학력, 경력 등)가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도 필자가 개인적으로 확보해 왔던 자료도 참조하였다. 제2세대 연구자 중에는 학진의 연구자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이 경우는 확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고, 정보 확보가 어려운 몇몇 연구자의 경우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의 분석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제3장)는 제2세대 84명의 연구자를 다시 세 개의 코호트로 나누어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출신학교, 전공, 연구 주제 등을 코호트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후반부(제4장)는 지난 20년간을 세 개의 기간으로 나누고 이들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각 기별(期別)로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동남아 지역연구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9) 이는 최근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시스템(KRI, Korea Researcher Information)'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전과 차이가 없어 이전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Ⅲ. 사회과학 분야 제2세대 동남아 지역연구자: 코호트(Cohort)별 분석

1. 개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는 먼저 ‘제 2세대의 사회과학 분야 동남아 지역연구자’ 84명을, 이들이 동남아 지역연구 분야에 입문한 시기에 따라 세 개의 코호트로 나누어 분석한다. 여기에서 ‘동남아 지역연구 분야 입문 시기’란 전술한 ‘동남아 지역연구 전문가’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킨 시기를 말한다. 즉, 동남아와 관련한 학위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의 경우 ‘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해’를, 그 외의 경우는 동남아 관련 주요 논문(3번째)을 게재한 해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리하여 첫 번째 코호트(코호트 1)는 1986년부터 1994년 사이(9년 동안)에, 두 번째 코호트(코호트 2)는 1995~2000년(6년) 기간에, 세 번째 코호트(코호트 3)는 2001~2007년(7년) 기간에 입문한 사람들로 각각 구성되었다.

이상 세 코호트는 전체의 대략 1/3 정도씩으로 구성되는데, 코호트 1은 25명, 코호트 2는 29명, 코호트 3은 30명 등으로 이루어진다. 코호트별(기별) 구분은 단순히 수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1/3 정도씩 나눈 것은 아니며, 각 기별(期別)로 서로 다른 특성이 나타나고, 각 코호트 내에서는 일정한 동질성 또는 유사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선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전반에 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남아 지역연구에 입문)한 첫 번째 코호트는 학부과정에서부터 동남아 지역에 학문적 관심을 가졌다거나 동남아 지역연구에의 입문이 미리 기획되고 준비된 것이기보다는 대개 대학원 과정(그 대부분이 박사과정)에서 동남아 지역연구에의 입문이 다분히 비계획적으로(spontaneous) 이루어진 경우에 속한다. 반면에 1990년대 후반에 학위

를 취득한 두 번째 코호트는 제1코호트에 비해 동남아 지역연구를 선택한 보다 구체적인 동기가 있고, 대개 석사과정에서부터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분명한 선호와 학문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동남아 현지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등 제대로 된 ‘지역연구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물론 제1코호트에도 예외적인 사례는 있다.) 그리고 이들은 제1코호트가 학계에 진입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 한국동남아학회와 동남아지역연구회 등 학회·연구회의 창립과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지역연구의 출범이란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부터 상당한 학문적 자극을 받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학위를 받고 동남아 지역연구에 입문한 제3코호트는 제2코호트보다 더 분명한 학문적 동기를 갖고 있다. 이들은 제1코호트가 주도하여 1990년대 초부터 한국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동남아 지역연구란 학문적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첫 그룹이라고 하겠다. 이들은 사전부터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지역연구를 준비하고 시작한, 제대로 ‘기획된(prearranged)’ 연구자들이라 할 만하다.¹⁰⁾

이들 세 코호트는 위와 같은 조건에서뿐만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출신 학교, 전공 등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학문적 지향이나 탐구 주제의 성격 등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이는 아래의 분석에서 자세히 드러날 것이다.

먼저 제2세대의 사회과학 분야 동남아 지역연구자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84명의 85%에 해당하는 71명이 남자이고, 나머지 13명(15%)이 여자이다(<표 1>볼 것).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여성의 비중이 7~8%에 머무는 제1, 2코호트와 달리 제3코호트의 경우

10) 전제성(2006: 113)은 1990년대의 동남아연구자들을 ‘우연적’ 연구자로, 2000년대의 동남아연구자들을 ‘의식적’ 연구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본 논문에서의 제1코호트를 가리키는 것으로, 후자는 제3코호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2코호트는 그 중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비율이 30명 중 9명으로 30%나 된다는 점이다. 연령대별 구성을 보면(<표 2>) 50대 전반이 26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31%를 이루고, 그 다음으로 40대 후반이 21명(25%), 40대 전반이 15명(18%)으로 이 세 연령대가 전체의 거의 3/4을 구성한다. 60대도 4명(5%)인데, 이들은 비록 연령대는 제1세대에 해당하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남아 지역연구에의 입문’이 늦어 제2세대로 분류하였다. 당연한 사실이긴 하나 코호트별로 중심이 되는 연령대가 조금씩 다르다. 제1코호트의 경우 50대 전반이, 제2코호트는 40대 후반이, 그리고 제3코호트는 30대 후반과 40대 전반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표 1> 성별 구성

성 별	코호트 1	코호트 2	코호트 3	소 계	
				인원수	%
남	23	27	21	71	84.5%
여	2	2	9	13	15.5%
합 계	25	29	30	84	100.0%

<표 2> 연령대별 구성*

연령대	코호트 1	코호트 2	코호트 3	소 계	
				인원수	%
30-34			1	1	1.2%
35-39		1	10	11	13.1%
40-44		5	10	15	17.9%
45-49	4	13	4	21	25.0%
50-54	14	7	5	26	31.0%
55-59	4	2		6	7.1%
60-64	3	1		4	4.8%
합 계	25	29	30	84	100.0%

주: *연령은 2008년을 기준으로 했음

한편, 동남아 지역연구자들의 직업 및 직장을 살펴보면(<표 3>)

전체의 64% 이상이 대학 등의 전임교수로 그 비중이 가장 높고, 대학의 시간강사와 연구원, 각종 비전임 교수 등이 17% 정도로 그 다음 범주를 이룬다.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전임교수의 비중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데, 제1코호트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고(22명, 전체의 88%), 제2코호트는 21명으로 전체의 72% 정도, 제3코호트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더 낮아 11명으로 전체의 37%에 못 미친다. 제3코호트에서는 비전임 교수·강사의 비중 또한 37%로 다른 코호트에 비해 높은 편인데, 이는 충분히 예견되는 바이다.

<표 3> 직업 및 직장*

직업/직장	코호트 1	코호트 2	코호트 3	소 계	
				인원수	%
대학 전임교수	22	21	11	54	64.3%
비전임교수·강사**	-	3	11	14	16.7%
연구소 연구원***	1	4	3	8	9.5%
공무원	2	-	1	3	3.6%
기 타	-	1	1	2	2.4%
자료 없음	-	-	3	3	3.6%
합 계	25	29	30	84	100.0%

주: * 조사시점인 2008년 3월을 기준으로 하였음

** 대학의 비전임교수(겸임교수, 연구교수 등) 및 강사, 대학부설 연구소의 연구원 등

*** 국립 및 사립 연구소의 전임 연구원

2. 출신 학교와 전공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이들 84명의 연구자들은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아래에서는 이들의 출신 학교—대학 학부, 대학원(석·박사과정)—과 전공을 코호트별로 비교 분석해 본다. 우선 출신 학부를 보면 서울대와 한국외대가 각각 21명과 1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 8명, 서강대가 7명 등 이들 5개 주요 대학이 전체의 73%를 구성한다(<표 4> 볼 것). 그러나 코호트별로는 출

신 학부 구성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외대 출신이 다른 코호트보다 제2코호트에서 그 비중이 특히 높다(10명으로 코호트 전체 29명의 35%)는 점과 제3코호트에서 학부 구성이 훨씬 더 다양해졌다는 점 등이 특기할 만하다. 제3코호트의 경우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어떤 학교도 코호트 전체의 10%이상을 점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의 대학들(아세아연합신학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등)이 23%(7명)나 차지하는 등 많은 학교가 골고루 동남아 지역연구자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편, 해외대학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은 전체를 통틀어 단 두 명뿐이다.

<표 4> 코호트별 출신 학부 비교

학 교	제1코호트	제2코호트	제3코호트	소 계	
				인원수	%
서울대	6	6	9	21	24.7%
한국외대	5	10	3	18	21.2%
고려대	4	4	0	8	9.4%
연세대	4	1	3	8	9.4%
서강대	1	3	3	7	8.2%
성균관대	3	0	2	5	5.9%
기 타	1	2	7	10	11.8%
해외대학	1	1	0	2	2.4%
자료 없음	0	2	4	6	7.1%
합 계*	25	29	31*	85	100.0%

주: *한 명의 연구자가 두 군데 학부에서 서로 다른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음

동남아 지역연구자들의 학부 전공을 살펴보면, 역시 정치학이 전체의 26%로 가장 많고, 동남아 지역 어문학이 20%로 그 다음을 차지하며, 인류학(12%), 경제학과 역사학(각 8%), 사회학(6%) 등이 그 뒤를 잇는다(<표 5> 볼 것). 학부 전공 또한 코호트별로 차이가 있는데, 제2코호트의 경우 어문학 전공자의 비중이 높고, 제3코호트의 경우 인류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표 5> 코호트별 학부 전공 비교

전 공	제1코호트	제2코호트	제3코호트	소 계	
				인원수	%
정치학	10	5	7	22	25.9
어문학	4	9	4	17	20.0
마인어문학	2	3	2	7	8.2
태국어문학	2	1	0	3	3.5
베트남어문학	0	3	0	3	3.5
기타어문학	0	2	2	4	4.7
인류학	2	2	6	10	11.8
경제학	3	3	1	7	8.2
역사학	2	3	2	7	8.2
사회학	1	3	1	5	5.9
법 학	2	0	0	2	2.4
기 타	1	2	4	7	8.2
자료 없음	0	2	6	8	9.4
합 계*	25	29	31*	85	100.0

주: *한 명의 연구자가 두 군데 학부에서 서로 다른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음

다음으로 석사과정 출신 대학원을 보면 학부에서와는 달리 해외 대학의 비중이 33%로 상당히 높다(<표 6> 볼 것). 그리고 코호트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제1코호트에 비해 제2코호트에서, 그리고 제2코호트에 비해 제3코호트에서 국내 대학원 출신의 비중이 더 높다. (국내 대학원 출신의 비중은 제1코호트에서 39%(10명), 제2코호트에서 58%(18명), 제3코호트에서 65%(22명)로 점점 늘어나고 있음.) 해외대학 중에서도 초기에는(제1코호트에서는) 미국 대학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가 점차 동남아시아 지역 대학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표 6> 코호트별 출신 대학원(석사과정) 비교

학 교	제1코호트	제2코호트	제3코호트	소 계	
				인원수	%
국내대학 대학원	10	18	22	50	54.9%
서울대	2	4	7	13	14.3%
한국외대	2	4	4	10	11.0%
서강대	1	4	3	8	8.8%
고려대	1	5	0	6	6.6%
연세대	1	0	4	5	5.5%
성균관대	1	0	2	3	3.3%
기타 대학	2	1	2	5	5.5%
해외대학 대학원	12	10	8	30	33.0%
미 국	10	5	2	17	18.7%
동남아시아	1	3	5	9	9.9%
유 럽	1	0	1	2	2.2%
호 주	0	1	0	1	1.1%
일 본	0	1	0	1	1.1%
자료 없음	4	3	4	11	12.1%
합 계*	26	31	34	91	100.0%

주: *상당수의 연구자가 두 군데 이상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음

동남아 지역연구자들의 석사과정 전공을 살펴보면, 역시 정치학이 전체의 32%로 가장 많고, 지역학(Areas Studies)이 14%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인류학,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등이 그 뒤를 잇는다(<표 7>). 학부 과정에서 그 비중이 높았던 동남아 어문학은 단지 2명뿐으로 그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이는 학부에서 어문학이나 역사학, 법학 등을 전공하던 사람 중 상당수가 석사과정에서 지역학이나 정치학으로 전공을 바꾼 데 기인한다. 코호트별로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학부 전공에서와 마찬가지로 제3코호트의 경우 인류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표 7> 코호트별 대학원(석사과정) 전공 비교

전 공	제1코호트	제2코호트	제3코호트	소 계	
				인원수	%
정치학	9	9	10	28	32.2%
지역학*	4	5	3	12	13.8%
인류학	2	2	6	10	11.5%
경제학	3	3	3	9	10.3%
사회학	2	4	2	8	9.2%
역사학	1	2	2	5	5.7%
동남아시아 어문학	0	2	0	2	2.3%
기 타	0	0	2	2	2.3%
자료 없음	4	3	4	11	12.6%
합 계**	25	30	32	87	100.0%

주: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또는 아시아 지역연구

**상당수의 연구자가 두 군데 이상의 대학원에서 서로 다른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음

마지막으로 박사과정 출신 대학원을 보면 해외대학의 비중이 62.4%로, 석사과정에서보다도 훨씬 더 높다(<표 8> 볼 것). 해외대학 중에서는 역시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고(전체의 32%), 그 다음이 동남아시아이다(전체의 13%). 코호트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제1코호트의 경우 해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비중이 81%로 매우 높은 데 비해, 제2코호트는 그 비중이 48%, 제3코호트는 60%로 비교적 낮아졌다. 또한 제1코호트의 경우 미국 대학 박사학위 수여자의 비중이 압도적이었으나, 제2~3코호트에 와서는 그 비중이 크게 낮아졌고, 그 대신 동남아, 유럽, 호주 등 여러 다른 지역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8> 코호트별 출신 대학원(박사과정) 비교

학 교	제1코호트	제2코호트	제3코호트	소 계	
				인원수	%
국내대학 대학원	5 (19%)	15 (52%)	12 (40%)	32	37.6%
한국의대	1	4	3	8	9.4%
서울대	1	3	3	7	8.2%
서강대	0	3	1	4	4.7%
기타 대학	3	5	5	13	15.3%
해외대학 대학원	21 (81%)	14 (48%)	18 (60%)	53	62.4%
미 국	17	5	5	27	31.8%
동남아시아	2	4	5	11	12.9%
유 럽	1	2	4	7	8.2%
호 주	1	2	3	6	7.1%
일 본	0	1	1	2	2.4%
합 계*	26* (100%)	29 (100%)	30 (100%)	85	100.0%

주: *한 명의 연구자가 두 군데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음

동남아 지역연구자들의 박사과정 전공을 살펴보면, 정치학의 비중이 석사과정에서보다 더 높아져 전체의 46% 이상을 차지한다(<표 9>). 이는 석사과정에서 지역연구 등 여타의 전공분야에 있던 사람 중 상당수가 박사과정에서 정치학으로 전공을 바꾼 때문이다. 정치학 다음으로 그 비중이 높은 분야는 인류학(16%), 경제학(12%), 사회학과 역사학(각 9.5%) 등의 순이다.¹¹⁾ 코호트별로 비교해 볼 때,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학부나 석사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류학의 비중이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학의 비중이 제1코호트의 60%(25명 중 15명)에서 제3코호트에 와서 40%(30명 중 12명)로 떨어진데 비해, 인류학은 8%(25명 중 2명)에서 23%(30명 중 7명)로 크게 늘어났다.

11) 공식적으로는 ‘동남아지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그 전공영역이 뚜렷한 경우, 후자를 박사과정의 전공으로 간주하였다.

<표 9> 코호트별 대학원(박사과정) 전공 비교

전공	제1코호트	제2코호트	제3코호트	소계	
				인원수	%
정치학	15	12	12	39	46.4%
인류학	2	4	7	13	15.5%
경제학	3	3	4	10	11.9%
사회학	2	3	3	8	9.5%
역사학	3	4	1	8	9.5%
기타*	0	3	3	6	7.1%
합계	25	29	30	84	100.0%

주: *제2코호트의 경우 언어학 2, 경영학 1; 제3코호트의 경우 도시계획학, 선교학, 아시아지역연구 각 1명

3. 코호트별 (가공의) 전형적 연구자 분석

다음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시도를 해 보았는데, 각 코호트별로 가장 전형적인 연구자가 어떤 모습일지, 그는 어떤 생애사(life-history) 적 특성을 지닐지 자료를 통해 추정해 보았다. 각 코호트별로 여러 가지 변인(variable)에 대해 평균값(mean)이나 중앙값(median) 또는 최빈값(mode)을 구해 보면, 가장 전형적인 연구자가 대체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¹²⁾

우선 제1코호트의 경우 거개가 현재 50대 전반의 남성으로 대학의 전임교수로 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니고, 1980년대

12) 연령, 졸업연도 등 연속변인의 경우, 단순 평균값이 전체의 평균적인 모습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연령의 경우 나이가 너무 많거나 적은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즉, outlier가 한두 사례만 있어도) 평균값에 큰 영향을 미쳐 전체의 모습을 왜곡시킨다. 이런 경우에는 중앙값을 택하거나, 아니면 outlier를 제거(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과 가장 어린 사람 각 1명 또는 2명씩을 제거)한 후 나머지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한편, 출신 대학이나 전공 등 명목변인에서는 (평균값과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최빈값(最頻值, mode)을 중심으로 하였고, 필요한 경우 그 다음 빈도의 항목도 언급해 주었다.

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대학원을 다녔으며, 1980년대 말 또는 1990년대 초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들 중 다수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정치학을 전공했다. 연령, 졸업연도, 학위수여연도 등 여러 가지 변인의 평균값이나 중앙값을 구해 제1코호트에서 가장 전형적인 가공의 인물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다. 이 가공의 인물은 1955년생으로 학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후 1978년경에 대학을 졸업했고, 1983년을 전후하여 국내 또는 미국의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그리고 1990년경 미국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학위를 받은 그 해 국내 대학에 전임교수로 임용되었다. 이러한 제1코호트의 평균적인 생애사에 가장 근접한 연구자로는 배공찬, 신윤환, 윤진표 등을 들 수 있다.

제2코호트의 대부분은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역시 대학의 전임교수들이다. 이들은 1980년대 전반에 국내에서 학부를 다녔고, 학부의 전공은 제1코호트에서와는 달리 동남아 지역 어문학이 다수를 이루며,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전반에 대학원(석·박사과정)을 다녔으며, 이 중 다수가 국내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들은 1990년대 중후반경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다양한 지역과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전공은 정치학이 여전히 우세하다. 이러한 특성을 대표하는 제2코호트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은 1960년생으로 학부에서 어문학을 전공하고 1985년에 대학을 졸업했으며, 1990년에 국내 대학에서 정치학 또는 지역연구로 석사학위를, 그리고 1997년에 국내 또는 해외의 대학원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학위를 받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1998년)쯤에 대학에 전임교수로 임용된다. 이러한 제2코호트의 평균적인 생애사에 가장 근접한 연구자로는 박은홍, 이병도, 이한우, 홍석준 등을 들 수 있다.

제3코호트의 경우 그 연령대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전반에 걸쳐

넓게 분포하며, 남성이 여전히 다수를 이루나 여성의 비율이 다른 코호트보다 높다. 그리고 대학의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의 비율이 반반으로 다른 코호트에 비해 비전임 교수·강사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그 연령이 낮고 학위를 받은 지 그리 오래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하겠다. 이들은 대체로 19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니고, 1990년대에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데, 석사과정은 대부분 국내에서, 박사과정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지역과 학교에서 이수하였다. 그리고 대체로 2000년대 초에 박사학위를 받으며, 일찍 학위를 받은 일부는 전임교수로 임용되었으나, 최근에 학위를 받은 상당수는 비전임으로 남아 있다. 전공은 여전히 정치학이 대세이긴 하나 인류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제3코호트에서 가장 전형적인 인물은 1966년생의 남성으로 1989년경 학부를 졸업하고, 1993년을 전후하여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2003년경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러한 제3코호트의 평균적인 생애사에 가장 근접한 연구자로는 전제성, 최정욱, 최호림, 황인원 등을 들 수 있고, 여성 연구자로는 김이선, 조윤미 등을 들 수 있다.

4. 전공 연구지역 및 연구주제

다음으로 각 연구자의 전공 영역과 연구 주제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이 사회과학 내 여러 학문분과(정치학, 인류학, 경제학 등) 중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들의 박사과정 전공과 거의 예외 없이 일치하므로 논외로 하겠다. 여기서는 이들의 연구지역(국가) 및 세부 연구 주제를 다루도록 한다.

먼저 이들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나타난 전공 연구지역과 주제를 코호트별로 서로 비교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단일사례연구 방법을 택했는지, 아니면 국가간 비교연구 방법을 사용했는지 등 연구방법

의 한 측면도 함께 다루었다(<표 10> 볼 것).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84명 중 82%가 넘는 69명이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동남아와 별다른 관련 없는 주제로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15.5%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자(前者)의 경우 단일국가 사례 연구가 대부분으로 전체 박사학위 논문의 51.2%를 차지하며, 국가간 비교연구는 21.4%를 차지한다. 단일사례연구에서 다룬 국가 중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박사논문에서 가장 즐겨 다루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그 뒤를 잇는다.

<표 10> 박사학위논문에서의 전공지역 및 연구방법(코호트별)

전공지역/주제/연구방법	코호트 1	코호트 2	코호트 3	소 계	
				인원수	%
단일국가 사례연구	8	17	18	43	51.2%
베트남	-	7	4	11	
인도네시아	2	3	6	11	
말레이시아	2	3	4	9	
태 국	3	2	3	8	
필리핀	1	1	-	2	
캄보디아	-	-	1	1	
미얀마	-	1	-	1	
국가간 비교연구	10	2	6	18	21.4%
동남아 국가간 비교	2	-	2	4	
동남아 국가와 한국 비교	6	1	2	9	
동남아 국가와 여타 국가 비교	2	1	2	5	
동남아 관련 기타의 주제들	3	3	2	8	9.5%
동남아시아 지역 일반	2	2	1	5	
아세안(ASEAN)	1	-	-	1	
한-아세안 관계	-	1	1	2	
기타의 주제들	4	6	3	13	15.5%
한 국	3	3	3	9	
기 타	1	3	-	4	
자료 없음	-	1	1	2	2.4%
합 계	25	29	30	84	100.0%

그런데 이 자료를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코호트 간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제1코호트에서 비교연구(특히 한국을 포함한 비교연구)가 대중을 이룬 반면, 제2, 제3코호트에서는 단일국가 사례연구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제1코호트 연구자들이 동남아지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비교적 늦게 시작되고, 상당히 우연적으로 시작된 경향이 없지 않은 반면, 제2~3코호트는 비교적 일찍부터 (석사과정 등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선호가 분명하게 설정될 수 있었다는 차이에서 기인한 바 크다고 본다. 그리고 제2~3코호트에서 인류학의 비중이 커진 점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될 듯하다. 인류학의 경우 특정 국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한 심층적 연구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더 언급할 수 있는 점은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제2코호트 이후 크게 높아진 점이다.

마지막으로 <표 11>은 연구자들의 최종 전공지역을 보여준다. 한 연구자가 복수의 전공지역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다 계산하였다. 이 자료는 박사학위 논문 작성 당시의 전공지역(<표 10>)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추정컨대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동남아 각국 간 비교연구나 동남아와 한국 간 비교연구를 한 연구자 중 상당수가, 나중에 특정 국가를 자신의 전공지역으로 전문화하게 된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순으로 전공 연구자가 많다. 또한 동남아 지역 일반(이 범주에는 동남아 각국 간 비교연구, 동남아지역 경제, 아세안 등 동남아지역 국제관계 일반 등의 연구영역이 포함됨)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도 상당수 된다. 이를 코호트별로 다시 비교해 보면, 제2코호트부터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점, 반대로 필리핀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었다는 점 등이 특기할 만하다.

<표 11> 코호트별 최종 전공지역*

전공지역	코호트 1	코호트 2	코호트 3	소 계	
				인원수	%**
베트남	2	11	6	19	22.6%
인도네시아	4	3	8	15	17.9%
태 국	4	2	6	12	14.3%
말레이시아	3	3	5	11	13.1%
필리핀	5	2	1	8	9.5%
싱가포르	1	1	2	4	4.8%
미얀마	1	1	1	3	3.6%
캄보디아	-	-	1	1	1.2%
동남아시아 지역 일반	8	6	6	20	23.8%
기 타***	5	-	-	5	6.0%
합 계	33	29	36	98	116.7%

주: *한 연구자에 복수의 전공지역도 가능함

**백분율은 전체 84명을 분모로 하여 계산했음

***동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 지역주의, 한-아세안 관계, 중-아세안 관계 등의 주제가 포함됨

IV. 제2세대 동남아 지역연구의 흐름

아래에서는 제2세대 동남아 지역연구자가 주로 활동해온 지난 20년간을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우리나라 동남아 지역연구가 어떤 연구 경향을 보여 왔는지를 비교 분석해 볼까 한다.¹³⁾

13) 본 장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다. 본 장에 거론된 연구자와 그 연구물은 학진 통합연구인력정보에 공개된 자료에 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널리 알려진 몇몇 특정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물에 국한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동남아 지역을 다루고 있는 많은 동남아 관련 연구물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한계는 전적으로 필자의 부주의와 자료수집 능력 부족 때문이다. 추후 적절한 시기에 동남아 지역연구 분야의 연구업적에 대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화와 그에 대한 엄밀하고 공정한 분석을 다시 한번 시도할 예정이다.

1. 제1기(1990년대 전반)

이 시기는 제1코호트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한 직후로서, 이 시기의 주된 연구는 대개 이들 제1코호트 연구자들의 학위 논문이거나, 비교적 일찍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의 경우는 학위 논문 외에 학위수여 직후의 후속 작업들로서, 이들이 주된 분석의 대상이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사실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학위를 취득하고 동남아 지역연구에 입문한 초기 연구자들이 학회(한국동남아학회)와 연구회(동남아지역연구회)를 결성하고, 함께 학회지를 발간하고 공동의 저작(번역서 포함)을 출간하는 등 동남아 지역연구의 지평을 새로이 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나온 대표적인 저작물로는 현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전신인 동남아정치연구회¹⁴⁾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번역하고 편집한 『동남아정치입문』(1991), 『동남아 정치와 사회』(1992), 그리고 동남아지역연구회로 확대 개편한 이후 출간한 번역서, 『현대 동남아의 이해』(1993) 및 공동저작으로 출간한 『동남아의 정치변동』(1994), 『동남아의 정치경제』(1995) 등이 있으며, 소병국, 양승윤 등이 참여한 『일제하의 동남아』(김영애 외 1995)가 있다.

(1) 정치, 경제 및 정치경제 분야

먼저 이 시기의 정치학 및 경제학 분야, 그리고 정치경제학적 연구에 대해 살펴보자. 앞 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의 박사학위논문에서는 비교연구가 비교적 많이 눈에 띄는데, 특히 정치학자

14) 1990년 12월에 창설된 '동남아정치연구회'의 창설 멤버는 8명의 정치학자들(박사명, 배궁찬, 신윤환, 양승윤, 윤진표 등)로 이들은 모두 『동남아정치입문』의 편역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회는 그 후 16명의 회원(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등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역사학, 어문학 전공자를 포함하는)을 추가로 맞이하여 1992년 8월 '동남아지역연구회'로 확대 개편했으며, 다시 2003년 12월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로 완전히 제도화되었다.

들의 연구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는 제1코호트의 정치학 분야 연구자들의 동남아 지역연구 입문이 특정 국가에 대한 관심에서보다는 ‘비교정치학’ 분야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동남아 각국 간, 또는 동남아 국가와 여타 지역의 국가 간의 비교연구로 학위논문을 작성한 예로는 박사명(Park S. 1988), 배공찬(Bae 1988), 고우성(Ko 1990), 윤진표(Yoon 1990), 전제국(Jeon 1990), 박기덕(Park K. 1993), 서경교(Seo 1993) 등을 들 수 있다. 당시 비교정치학 분야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 중 하나는 제3세계 국가들의 국가체제(state system)에 대한 것이었는데, 우리 연구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학위논문에서 동남아 여러 나라 국가체제의 형성과 변화과정, 국가능력(state capacity) 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 중 박사명은 필리핀·인도네시아의, 배공찬은 인도네시아·필리핀·한국의, 고우성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한국의, 윤진표는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국가체제의 성격과 형성 및 변화과정을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외에 박기덕은 한국과 필리핀의 체제 공고화를, 서경교는 필리핀·태국·한국에서의 군부의 정치개입과 민주화 과정을 비교 분석했고, 전제국은 한국·대만·태국·싱가포르의 발전모형을 비교하였다.

반면에 단일국가를 대상으로 집중 분석한 학위논문도 있었는데, 신윤환(Shin 1989)과 양승윤(1991)은 인도네시아를, 김홍구(1990)는 태국을 연구하였다. 이 중 신윤환은 자신의 학위논문에서 수하르토 지배하 인도네시아의 국가와 (국가의 후견에 의한) 자본가계급의 형성과정을 분석했고, 양승윤은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정치발전을 연구했으며, 김홍구는 1932~76년까지 태국 군부의 정치개입에 관하여 연구했다. 한편, 김성주(Kim S. 1986)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논문(동남아의 안보체제)으로 학위를 했다.

이들 대부분은 학위를 취득한 이후 그 후속 작업으로, 학위논문

서 발전시킨 연구 주제를 더 발전시키거나 혹은 이와 관련되는 주제의 연구 성과를 내놓게 되는데, 그 예로는 김홍구(1996), 박기덕(1994), 박사명(1991, 1993, 1996), 서경교(1994), 신윤희(Shin 1991, 신윤희 1993a), 양승윤(1992)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드물지만 연구 주제를 다변화하는 시도도 있었으니, 예컨대 신윤희(1993b, Shin 1995a, 1995b)은 당시 세계화의 영향 및 국내노동시장의 변화로 동남아에 진출하기 시작한 한국 기업의 현지 행태에 대한 연구들을 내놓았다.

한편, 경제학에서는 구성열(1992)이 베트남의 경제와 경제정책에 대해서, 김종길(Kim J. 1992)이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¹⁵⁾ 한편, 박인원은 이 시기에 처음으로 동남아의 경제통합과 관련된 주제로 학위(Park I. 1993)를 하고 귀국했다.

(2) 사회, 문화, 역사 분야

인류학 분야에서는 이 시기에 오명석이 말레이시아 농촌·농민에 대한 연구로 호주에서 박사학위(Oh 1994)를 받았고, 학위논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같은 주제의 논문(1993)을 내놓았다. 한편, 제2코호트에 속하는 홍석준은 말레이시아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논문(1993)을, 제3코호트에 속하는 김민정은 필리핀 여성노동에 관한 논문(1993)을 각각 내놓았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이 시기에 박승우가 학위(Park S. 1991)를 한 후 몇 편의 후속 연구를 내놓았고(박승우 1993, 1994; Park and Green 1995), 1986년에 제3세계 발전에 관한 연구로 학위를 한 유석준도 동남아 각국의 사회제도에 관한 연구를 몇 편 내놓았다(1994, 1995).

역사학 분야에서는 권오신이 미국의 대 필리핀 정책으로 필리핀

15) 구성열은 1979년에, 김종길은 1981년에 학위를 했으나, 이들의 학위논문은 동남아와 직접 연관은 없다. 이들은 1993~94년경에 이르러 동남아와 관련한 주요 논문 3편을 게재했으며, 따라서 이 시기에 동남아 지역연구에 입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에서 학위(Kwon 1992)를, 소병국이 말레이시아의 현대사 연구로 미국에서 학위(Soh 1993)를, 그리고 조홍국이 태국의 근대사로 독일에 서 학위(Cho 1993)를 했으며, 이들은 그 후 학위논문의 주제를 발전시켜 몇 편씩의 후속연구를 내놓는다(예, 조홍국 1994; 소병국 1995).

이처럼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 제2세대의 제1기라 할 수 있는 1990년대 전반은 사회과학 분야의 동남아 지역연구자가 본격적으로 배출되고 이들에 의해 동남아 지역연구의 ‘학계’라고 부를 만한 환경이 조성되던 시기이며, 동남아 지역연구의 초석이 놓인 시기라 하겠다.

2. 제2기(1990년대 후반)

1990년대 후반이 되면 새로운 많은 연구자들이 동남아 지역연구에 가세한다. 우선 양길현, 황귀연, 홍석준, 박은홍, 정영규, 권윤희, 박번순, 이한우 등이 국내에서 학위를 하고 차례로 동남아 지역연구에 입문했고, 박광섭, 송정남, 제대식 등이 동남아에서, 김형준과 최병욱이 호주에서, 정연식이 미국에서, 최동주가 영국에서, 박장식이 인도에서 학위를 하고 한국 동남아 지역연구자의 대열에 합류한다.¹⁶⁾

이 시기에 들어와서 동남아지역연구회는 공동연구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데, 그 성과물로 『동남아의 정치리더십』(1996)과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1997)가 있다. 그 외에도 동남아 지역연구자들의 주요 공동연구 결과물로는 『동남아의 종교와 국가』(김영애 외 1999), 『동남아의 이슬람』(양승윤 외 2000a)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의 아주 특기할 만한 연구 성과는 동남아의 화인사회에 대한 연구가

16) 양중희, 박종철, 이광철, 하순, 한도현 등은 학위는 제1기에 받았으나 학위논문이 동남아와 직접 관련이 없는데, 그 후 동남아와 관련한 후속연구를 여럿 내놓아 이 시기에 이르러 동남아 지역연구에 입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박사명 외 2000, 『동남아의 화인사회』).

한편, 이 시기에 빠뜨릴 수 없는 사실은 동남아 각국에 대한 개괄적인 입문서 형식의 책자가 많이 출간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외국어 대학교에서는 ‘동남아학 총서’라는 이름으로 동남아 각국을 소개하는 책자를 시리즈로 내놓는데, 그 집필에 이 분야의 많은 지역연구자들이 참여하게 된다.¹⁷⁾ 김홍구(1999) 또한 이 시기에 태국에 관한 입문서를 상재(上梓)했다.

(1) 정치, 경제 및 정치경제 분야

이 시기에 들어와서 연구 주제는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참여하는 연구자의 성향 및 분포만큼이나 다양해졌다. 이를 정치학 분야에서 먼저 살펴보면, 동남아 각국의 정치변동과 민주화(필리핀—박사명 2000a; 서경교 1999b, 2000), 정치제도(필리핀—서경교 1999a), 군부와 정치(태국·인도네시아—윤진표 1996), 종교와 정치(태국·라오스—김홍구 1996, 1998) 등 여러 다양한 주제하에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 시기에 박광섭이 탈냉전시대 아세안의 대외정책에 대한 연구(Park K. 1995)로, 최동주가 한국의 월남전 참전에 관한 연구(Choi D. 1995)로, 양길현이 미얀마를 한국 및 니카라과와 비교하는 연구(1996)로, 황귀연이 베트남의 개혁개방을 주제로 한 연구(1996)로, 정연식이 중국과 베트남의 시민사회를 비교하는 연구(Jeong 1997a)로, 이한우가 베트남의 농업개혁정책에 관한 연구(1999)로, 그리고 이병도가 태국 정당정치에 관한 연구(2000)로 각각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편, 배궁찬은 본인이 학위논문에서 다룬 주제와 방향을 달리 해서 이후 아세안에 대한 연구(1997, 1998)에 집중하며, 변창구는 자신

17) 말레이시아(양승윤 외 1998a); 필리핀(양승윤 외 1998b); 싱가포르(유인선 외 1998); 태국(한국태국학회 편 1998); 미얀마(양승윤 외 1999a); 라오스·캄보디아(양승윤 외 1999b); 베트남(양승윤 외 2000b).

의 학위논문(1987)에서 아세안을 주제로 다룬 후 이에 대한 천착을 계속하고 있다(1999, 2002). 그 밖에 정치학자들의 연구 중에서 세계화와 동남아(박사명 2000b), 베트남에서의 조합주의에 대한 연구(정연식 1999; Jeong 1997b) 등이 언급할 만하다.

정치경제학 분야에서는 박은홍이 태국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1998)를 받았고, 윤진표가 태국의 국가와 시장 간 관계(1997), 박승우가 필리핀의 국가와 계급 간 관계에 대한 논문(Park 1998)을 각각 내놓았다. 한편, 제3코호트에 속하는 전제성 역시 이 시기에 인도네시아의 노동문제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논문(1998, 1999)을 내놓았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박번순이 한국 기업의 대 동남아 투자에 관한 연구로 학위(1999)를 받았고, 정영규가 인도네시아의 산업 및 무역구조에 관한 연구로 학위(1998)를 받았다. 특히 도이머이(쇄신) 이후 베트남의 경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 주제에 관한 연구 또한 많아졌는데, 권율의 학위논문(1999)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가 나왔다(구성열 1996, 2001; 권율 2000; 박종철 1996; 이은호 외 1996; 이한우 2001). 그 밖에 김종길은 한·중 간 경제적 관계가 동남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논문과 아세안 국가의 경제성장에 관한 논문을 내놓았다(Kim J. 1997, 1999).

이 시기의 경제학 및 정치경제학 분야의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997년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위기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한때 붐을 이루었다는 사실이다(그 예로는, 박은홍 1999; 박인원·이충열 1999; Park and Lee 2000; AUN and KASEAS 2000).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까지 이어져 제3기에도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신윤환 외 2004, 2006; 윤진표 2003; 윤진표 외 2001).

(2) 사회, 문화, 역사 분야

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는 김형준과 홍석준이 각각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농촌을 중심으로 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Kim H. 1996; 홍석준 1997). 이들은 기존의 오명석과 더불어 이 시기에 동남아의 이슬람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내놓는다(오명석 1997; 홍석준 1999; 김형준 1998, 1999; Kim H. 1998a, 1998b).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이처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종교(이슬람)에 관한 연구가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연구가 아니었나 싶다(오명석 외 2008). 그 외에 오명석은 말레이 농촌사회의 가족농에 관한 연구(1999)를, 박사명은 식민지배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계급형성에 관한 연구(1996)를, 박승우는 필리핀의 농촌 계급관계와 생산체제에 대한 연구(1998a, 1998b)를 했으며, 김민정은 ‘동남아의 가족과 여성’이란 논문(1997)을 내놓기도 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이 시기에 와서 세 명의 사회학자가 공동으로 동남아 각국의 사회계층을 비교 분석한 연구서를 출간했다는 점이다(양종희·유석춘·박길성 1996).

한편, 미얀마 언어학으로 1996년 인도에서 학위를 한 박장식은 미얀마의 종족문제에 대한 논문(1993, 1995, 1996)을 내놓았고, 김성건은 이 시기에 싱가포르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논문(1995, 1996)을 내놓았으며, 박희는 필리핀 문화에 관한 논문(1999)을 내놓는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소병국이 학위논문의 주제를 계속 발전시켜 말레이시아의 20세기 현대사, 말레이 민족주의와 국가건설에 관한 연구(1996, 1997)를 계속했으며, 조홍국은 한국 등 동북아와 동남아 간의 교역관계에 대한 역사적 분석(조홍국 1999; Cho 2000)을 시도하였다. 한편, 송정남이 베트남과 한국 농촌마을의 변화를 비교하는 논문으로 베트남에서 학위(Song 1996)를, 최병욱이 19세기 베트남사로 호주에서 학위(Choi B. 1999)를, 그리고 노영순이 1930년대 인도차이

나 공산당에 대한 연구로 영국에서 학위(Nho 2000)를 하고 귀국했다. 그 외에도 권오신이 필리핀에서 미국의 식민지배에 대한 저서(2000)를 상재했고, 오스본(Milton Osborne)의 동남아 역사서가 번역(2000)된 것도 이 시기이다.

3. 제3기(2000년대)

제3기에 들어와서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는 각종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활성화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서강대 동아연구소가 주축이 되고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전공하는 연구자 60여 명이 참여한 동아시아연구단(연구책임자: 신윤희)은 2년간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귀중한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박사명 편 2004, 2005; 윤진표 편 2004, 2005; 오명석 편 2003; 김민정 편 2005). 그 외에 동남아 4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정치지도자를 비교하는 공동연구의 결과물이 『위기극복의 정치리더십』이란 제목으로 나왔고(박사명 외 2007), 한국과 동남아 간의 관계를 다룬 국내외 연구자들의 공동작업(Shin and Chayachoke ed. 2005)도 있었으며, 동남아의 선거정치와 선거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공동연구의 결과물도 최근 출간되었다(신윤희 편 2008a, 2008b). 이 밖에도 여러 공동연구가 현재 추진되고 있다.¹⁸⁾

제3기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지역통합과 지역 공동체 형성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18) 학진 등에서 수주하는 대부분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1~2년 정도의 단기적 계획하에 추진되는 것이며, 그 연구 주제 또한 대체로 급조되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제안된 연구 주제가 각자 평소 늘 가지고 있던 연구 지향이나 주제와는 거리가 있을 개연성 또한 높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동남아 지역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수주한 여러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동남아 지역연구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된다.

다. 초기에는 배궁찬(2001, 2003)과 이요한(2000, 2002, 2003) 정도만이 논의에 참여했으나(주로 아세안+3에 기초한 지역협력에 대한 연구에 치중), 그 후 다른 연구자들도 속속 이 논의에 가담하고 있다(박사명 2005, 2006, 2007; 박사명 외 2008; 박승우 2008; 신윤희 2008; 양길현 2005; 이재현 2007; 이한우 2007; 전제성 2007; 채수홍 2008; 황인원 2008; 그리고 Park and Supachai 2003에 실린 여러 논문들). 뿐만 아니라 최근 동아시아 지역화의 한 결과로 나타나는 동남아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연구(김민정 2007a, 2007b; 김민정 외 2006)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연구(채수홍 2007)도 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지역의 ‘한류(Korean Wave)’에 대한 일련의 연구 성과도 언급할 만하다(김상 2002; 김홍구 2005; 신윤희 2002; 이한우 2002a).

(1) 정치, 경제 및 정치경제 분야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젊은 코호트가 가세했을 뿐만 아니라 제1~2코호트의 연구자들도 자신의 연구 주제를 다변화함으로써 연구의 주제가 이전 시기보다 훨씬 더 다양해진다. 먼저 정치학 분야에서는 황인원이 말레이시아의 현대 정치사를 분석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Hwang 2001)를 받고 일련의 후속 연구를 내놓았으며(Hwang 2002, 2003; 황인원 2003), 전제성이 인도네시아의 노동정치로 학위(2002a)를 하고 역시 후속 연구를 내놓았다(2002b, 2004). 또한 강영순이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이슬람 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Kang Y. S. 2002)로, 이동윤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를 비교하는 연구(2002a)로, 최경희가 동남아 각국의 정치체제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2004)로, 그리고 최난경이 최근 인도네시아의 정당정치와 민주화에 관한 연구(Choi N. 2004)로 각각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이재현은 말레이시아 정치를 UMNO의 파벌주의와 민족주의로 분석하는 연구(Lee J. 2005)로, 이경찬은 말레

이시아의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2006)로, 조영희는 캄보디아의 정당과 선거에 관한 연구(2006)로 각각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남아 지역 연구에 입문했다.

정치학 분야에서 이 시기에 눈에 띄는 주요 연구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동남아 각국의 민주화 및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필리핀—박기덕 2002; 박승우 2007; 서경교 2005; Choi 2001b /태국—박은홍 2003a, 2005, 2007; 이동운 2002b /미얀마—양길현 2003 /인도네시아—최난경 2002 /국가간 비교연구—박은홍 2003b; 서경교 2007), 선거·정당 등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태국—이병도 2002, 2004 /베트남—이한우 2006 /캄보디아—정연식 2006 /인도네시아—최정욱 2005), 국가 구조 및 국가 능력에 관한 비교연구(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비교—윤진표 2007; 베트남과 한국 비교—윤충로 2005), 태국의 군부와 정치(김홍구 2007), 민족주의와 관련한 논의 (김동엽 2003; 이재현 2002), 테러리즘에 대한 연구(박광섭 2003, 2004, 2005, 2006) 등을 들 수 있겠다.

한편, 정치경제학 분야에서는 신윤희가 그간의 연구 성과를 모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2001)를 상재했으며, 그 밖에 언급할 만한 중요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로는 베트남의 토지제도에 관한 이한우의 논문(2002b), 식민지배하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국가, 계급, 민족 문제에 관한 박승우의 논문(2003a, 2003b, 2006), 그리고 김동엽의 박사학위논문(Kim D. 2003a)과 그 후속 연구(Kim D. 2002, 2003b) 등을 들 수 있다. 김동엽은 이들 논문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통신산업 부문의 시장자유화를 둘러싼 정치적 역동성을 풀어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동아시아 지역주의 논의는 경제학 분야에서도 활발하여 주로 경제통합과 경제공동체 형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권율 2004, 2005, 2006; Park I. and Kwon 2007; Park I. and Lee 2005), 박변순의 일련의 저작(2002, 2005)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변화와 지역통합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2) 사회, 문화, 역사 분야

이 시기에는 특히 인류학 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동남아 지역연구자들이 탄생했다. 우선 강윤희가 인도네시아 뿌탈랑안 사회의 언어(특히 주술언어)에 관한 연구로 학위(Kang 2002)를 한 후, 일련의 언어인류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내놓았고(Kang 2003, 2006), 김민정이 필리핀 농촌마을의 사회적 관계와 젠더, 결혼과 친족, 모성에 관한 연구로 학위(2002)를 한 후, 역시 이와 관련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2001, 2003a, 2004). 또한 김예겸은 인도네시아 농촌 여성에 대한 연구로 학위(Kim Y. 2003a)를 한 후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를 내놓았고(김예겸 2004; Kim Y. 2004; Kim Y. and King 2004), 김이선은 관광 및 관광 공예품의 인류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로 학위(2003)를 한 후 관련된 주제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2004), 채수홍 또한 베트남의 섬유회사 작업장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로 학위(Chae 2003)를 한 후 일련의 후속 연구를 내놓았다(채수홍 2003a, 2003b, 2005). 그리고 최호림은 베트남의 의례와 유적에 대한 문제를 국가-사회관계에 연결하여 분석하는 논문으로 학위(2003)를 하고 후속 연구를 내놓았고(2004, 2005), 조윤미는 인도네시아에서의 폭도와 이에 대한 자경주의적 대응에 대한 연구로 학위(Cho Y. 2005)를 했으며, 끝으로 이상국은 ‘국경사회체제’란 새로운 개념으로 태국·미얀마 국경지대의 지역사회를 분석하는 논문으로 학위(Lee S. 2007)를 했다.

이 시기에도 이슬람 등 동남아시아의 종교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계속되었으며(김형준 2001, 2003, 2007; 홍석준 2001, 2003; Kim Y. 2003b), 그 외에 민족과 종족 문제 또한 이 시기에 주된 연구 주제로 떠올랐다(오명석 2004; 제대식 2003; 조흥국 2006; 홍석준 2002).¹⁹⁾

19) 그 외에 건축학 분야에서 권태호(2002)가 동남아의 도시화와 대도시 구조를 분석한 연구를 내놓았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여타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문화와 미디어 분야에 심두보가 있으나, 그의

이 시기 역사학 분야에서는 윤대영이 새로이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과 베트남의 개혁운동을 비교한 연구로 학위(Youn 2007)를 하고 동남아 역사연구자의 대열에 합류했고, 최병욱은 19세기 베트남의 대 동남아 교역에 관한 연구(2000, 2002)를 비롯하여 근현대 베트남 역사에 관한 연구(최병욱 2004; Choi B. 2003)를 수행하고 있으며, 송정남은 학위 취득 이후 꾸준히 베트남의 토지제도에 관한 연구에 집중해 왔다(예, 송정남 2001). 한편, 이 시기에 소병국과 조흥국이 『불교군주와 술탄』(2004)을, 조흥국이 『태국—불교와 국왕의 나라』(2007)를 상재했으며, 최병욱이 『동남아시아사: 전통시대』(2006)를 상재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점령기에 대한 동남아인들의 역사인식과 역사교과서에 대한 분석(김민정 2003b; 노영순 2003; 전제성 2003; 조흥국 2003) 또한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2000년대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동남아 역사학이 시기적으로 근대 이후 역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과 (복수의 연구자가 존재하는) 베트남 역사 분야를 제외하고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역사 전공자가 1명씩뿐이고 나머지 지역 연구자는 거의 전무하다는 점, 그리고 여러 국가의 역사를 서로 비교하는 비교역사 연구나 동남아 전체를 포괄하는 역사 연구가 부재하다는 점 등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지난 20년간의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를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아가 이를 각각 3개의 코호트와 3개의

연구업적에 관한 자료가 학진 연구자정보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이쉽게도 본 연구에 포함되지 못했다.

시기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최근으로 오면서 우리나라의 동남아 지역연구가 양적·질적으로 그 다양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양적으로 볼 때, 초기의 연구자들(제1코호트)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출신 학교나 전공 면에서 더 다양해지고 있다. 우선 제1~2코호트에 비해 제3코호트에서 출신 학부가 보다 다양해지고 있고, 박사학위를 받은 지역 분포(국내 대 국외, 그리고 국외대학 중에서는 미국 대 동남아 등 여타 지역) 또한 제3코호트에서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학부나 박사과정에서의 전공 또한 정치학의 비중이 낮아지고 인류학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비록 미세하게나마 다양성이 커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는 성별 분포에서도 드러나는데, 제3코호트에서 여성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또한 다양성의 확대란 측면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1990년대 초에 비해 1990년대 말과 2000년대로 오면서 연구 주제가 더욱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²⁰⁾ 이는 최근 들어 여러 다양한 주제하의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전방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연구 주제의 다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화 및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 동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지역 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에 대한 연구, 한국-동남아 간 교류협력의 문제,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교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의 증대는, 매년 서너 명씩은 새로운 젊은 연구자가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동남아 지역연구 분야에 계속 입문하고 있는,

20) 최근 우리나라 동남아 지역연구에서 연구 주제의 다변화는 본 연구자뿐만 아니라 다른 관찰자들(오명석 외 2008; 전제성 2006: 122-24)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동남아 지역연구자의 충원구조상의 지속성에 의해서도 담보되고 있다.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아쉽고 모자라는 점이 없지 않으나, 우리나라 동남아 지역연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다양성은 그 미래를 한층 밝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남아 지역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본 연구에서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동남아 지역연구에 대한 우리 연구자들의 헌신 또는 몰입(commitment)이 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자는 스폴라십(scholarship, 학문적 활동)으로 뿐만 아니라 펠로십(fellowship, 동료의식, 연대감)으로도 잘 뭉쳐진 결사체라 할 수 있다. 한국동남아학회를 비롯하여 한국태국학회, 한국베트남학회 등 학회 조직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동남아연구소의 경우는 바로 이러한 펠로십으로 무장한 연대 조직이다.²¹⁾ 그리고 이러한 펠로십과 연대의식에 기반하여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매우 활발하다. 이는 동남아 지역연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우리나라의 동남아 지역연구가 현재의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중국에는 ‘동남아 지역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해 본다.²²⁾ ‘지역연구’가 ‘지역학’의 수준으로 질적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역연구는 단순히 인문사회과학 내 여러 분과 학문의 연구자들이 특정 연구지역에 대한 관심만을 공유할 뿐, 각 분과학문의 경계 내에서 개별적·병렬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게 사

21) 그러나 2003년 이후 이루어진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제도화 또는 경성조직화가 그 구성원들의 몰입과 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22) ‘동남아 지역연구’는 영어로 보통 ‘Southeast Asian Studies’라고 쓰는데, ‘동남아 지역학’은 ‘Southeast Asiology’라는 신조어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지역학을 지칭하는 용어들, 예컨대 Africology(아프리카학), Americanology(미국학 또는 아메리카학), Japanology(일본학) 등에서 따온 것이다.

실이다. 이러한 분과학문들을 (학문적·학문외적 장애 없이) 쉽게 넘나드는, 또는 분과학문 간 경계를 완전히 초월하는, 제대로 된 총체적·통합적 지역연구, 또는 초(超)분과학문적 지역연구가 지역학으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할 첫 번째 조건이라 본다(이수훈 1998).

둘째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동남아 지역연구는 단일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記述的)·정태적 연구, 또는 실용적·정책적 연구에 치중한 감이 없지 않다.²³⁾ 보다 정치한 이론적·방법론적 틀을 동원한 일반화의 시도, 또는 인과적 설명과 심층적 해석 위주의 이론화 작업이 더 필요하리라 본다(신윤희 1998). 그리고 이러한 이론화 작업을 통해 동남아 지역 전체를 관통하는 포괄적인 이론적 개념이나 엄격한 방법론적 전략, 그리고 비교 분석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임스 스콧(James C. Scott),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앤서니 리드(Anthony Reid) 등과 같은 동남아학의 대가들이 그 대표적인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성격의 ‘동남아 지역학’이 일정 수준 정립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의 진정한 새로운 세대, 즉 ‘제3세대’의 출현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주제어: 국제지역연구,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동남아시아 지역연구자, 동남아 지역학

23) 이것이 단일사례연구를 폄하하고 비교연구를 우월한 연구 전략으로 간주한다는 뜻은 아니다. 단일사례연구라 하더라도 (기존의 여러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얼마든지 심층적이고 이론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단일사례에 대한 일차원적이고 표층적인 기술(description)로 일관하는 연구들이다.

<참고문헌>

- 구성열. 1992. “베트남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공산권연구논총 제 18집.
- _____. 1996. “베트남 경제개혁의 성과와 한계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지역경제』 12월호(동남아특집).
- _____. 2001. “베트남 노동시장의 개혁.” 『동남아시아연구』 11(가을호).
- 권오신. 2000. 『미국의 제국주의』. 문학과지성사.
- 권 율. 1999. “베트남의 경제개혁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0. “베트남 국영기업 개혁에 관한 연구.” 『베트남연구』 1(1).
- _____. 2004. “동아시아 지역주의: ASEAN의 시각과 전략.” 『동남아시아연구』 14(1).
- _____. 2005. “최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 『동남아시아연구』 15(2).
- _____. 2006. “ASEAN-인도 자유무역지대 추진현황과 전망.” 『동남아시아연구』 16(2).
- 권태호. 2002. “동남아의 도시화 및 대도시 구조분석.” 『아시아연구』 5(1).
- 김동엽. 2003. “필리핀 민족주의와 미군기지 철수의 재조명.” 『동아연구』 45.
- 김민정. 1993. “필리핀 여성노동에 관한 일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2.
- _____. 1997. “동남아의 가족과 여성.” 동남아지역연구회 편,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 오름.
- _____. 2001. “아름다움과 도덕성: 필리핀 사회에서의 여성성과 권력.” 『동남아시아연구』 11(가을호).

- _____. 2002. “필리핀 농촌마을의 권력관계와 성차, 그리고 모성.” 서울대학교 인류학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3a. “필리핀 가톨릭의 성모 이미지와 어머니 역할.” 『비교문화연구』 9(2).
- _____. 2003b. “일본점령기에 대한 필리핀의 역사인식.” 『동아연구』 45.
- _____. 2004. “필리핀 농촌 마을의 주민 조직과 여성 리더십.” 『한국문화인류학』 37(2).
- _____. 2007a. “한국 가족의 변화와 지방 사회의 필리핀 아내.” 『페미니즘 연구』 7(2)
- _____. 2007b. “국제결혼과 인권: 한국과 필리핀의 국제결혼과 ‘인권’ 문제.” 『인권평론』 2.
- 김민정 · 유명기 · 이해경 ·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한국문화인류학』 39(1).
- 김민정 편. 2005. 『동남아의 중산층, 시민운동, 지역사회』. 폴리테이아.
- 김 상. 2002. “싱가포르에 ‘한류’가 존재하는가?” 『동아연구』 42.
- 김성건. 1995. “싱가폴의 종교와 문화.” 『국제지역연구』 4(4).
- _____. 1996. “싱가폴의 인종과 민족문제.” 『국제지역연구』 5(4).
- 김성란. 2006.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노동당의 인민동원선전.” 동경외국어대학 박사학위논문.
- 김영애 외. 1995. 『일제하의 동남아』.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_____. 1999. 『동남아의 종교와 국가』.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김예겸. 2004. “인도네시아 북 술라웨시 이주지역 소상인들의 이탈적 경제활동.” 『비교문화연구』 9(2).
- 김이선. 2003. “관광발달에 따른 타이 수공예품의 생산과 의미체계의 변화.” 서울대학교 인류학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4. “상품과 비상품 사이에서: 관광발달과 반타와이 목공예의 의미체계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37(1).

- 김종욱. 2000. “프랑스 식민지배하의 베트남 사적 토지소유.” 『동양사학연구』 69.
- _____. 2003. “베트남 경제발전의 정치 동학(1976-1997).” 『동남아시아연구』 13(2).
- 김형준. 1998. “자바 이슬람과 크리포드 기어츠, 그리고 그 후 40년.” 『동남아시아연구』 6.
- _____. 1999. “전통 의례의 이슬람화: 개혁주의 이슬람과 자바의 전통종교.” 『국제지역연구』 3(1).
- _____. 2001. “인도네시아의 무슬림-기독교도 관계의 변화.” 『동남아시아연구』 11(1).
- _____. 2003. “인도네시아 이슬람에서의 종교적 권위의 형성과 그 성격.” 『동남아시아연구』 13(2).
- _____. 2007. “정치적 지하드: 인도네시아 무함마디아의 대선 참여.” 『동남아시아연구』 17(1).
- 김홍구. 1990. “타이 군부의 정치개입 원인에 관한 연구, 1932-197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6. “태국 불교와 정치적 정통성.” 『동남아시아연구』 4.
- _____. 1998. “라오스의 승가와 국가권력.” 『동남아시아연구』 6.
- _____. 1999. 『태국학 입문』.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5. “태국의 한류현상.” 『한국태국학회논총』 12.
- _____. 2007. “태국의 탁실편 정부와 군부쿠데타.” 『동남아시아연구』 14(1).
- 노영순. 2003. “일본점령기에 대한 베트남의 역사인식과 평가.” 『동아시아연구』 45.
- 동남아정치연구회 역. 1991. 『동남아정치입문』. 서울: 박영사. (원서: John H. and Mae H. Easterline, 1986, *How the Dominos Fell*, London: Hamilton Press.)
- _____. 편역. 1992. 『동남아 정치와 사회』. 서울: 한울.

- 동남아시아지역연구회 역. 1993. 『현대 동남아의 이해』. 서울프레스 (원
서: C. D. Neher, *Southeast Asia in the New International Era.*)
- _____. 1994. 『동남아의 정치변동』. 서울: 21세기한국연구재단.
- _____. 1995. 『동남아의 정치경제』. 서울: 21세기한국연구재단.
- _____. 1996. 『동남아의 정치리더십』. 서울: 21세기한국연구재단.
- _____. 1997.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 서울: 오름.
- 박광섭. 2003. “세계적인 대 테러리즘 캠페인 이후 필리핀과 미국의
안보동맹관계.” 『아시아연구』 6(2).
- _____. 2004. “9·11 테러 사태이후 필리핀과 미국간의 관계강화.”
『국가전략』 10(2).
- _____. 2005. “MILF와 ASG의 알 카에다 주요 연계로 본 필리핀 테러
리즘 연구.” 『국제지역연구』 8(4).
- _____. 2006. “필리핀-미국 반테러리즘 협력의 표적으로서 아부 사
야프.” 『아시아연구』 9(1).
- 박기덕. 1994. “필리핀의 민-군 관계와 아키노 정부의 경제개혁.” 『국
제정치논총』 34(1).
- _____. 2002. “필리핀 정치변동과 시민사회의 역할.” 『한국정치학회
보』 36(1).
- 박변순. 1999. “한국 기업의 대동남아 투자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2. 『아시아경제 힘의 이동』.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_____. 2005. 『아시아경제 공존의 모색』.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박사명. 1991. “국가의 위기와 전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비교.”
『국제정치논총』 31.
- _____. 1993. “전환시대의 사회혁명: 필리핀 혁명운동의 위기와 행
방.” 『동남아시아연구』 2.
- _____. 1996. “식민지사회의 계급형성: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역사

- 적 비교.” 『동남아시아연구』 4.
- _____. 2000a. “필리핀 사회운동의 충격과 전환.” 『국제정치논총』 39(3).
- _____. 2000b. “세계화와 동남아: 도전과 응전.” 『한국정치학회보』 34(4).
- _____. 2005. “전장에서 시장으로: 중국-동남아관계의 지속과 변화.” 『동남아시아연구』 15(2).
- _____. 2006.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 이매진.
- _____. 2007. “시장에서 광장으로: 동아시아의 발전주의적 경쟁을 넘어서.” 『동남아시아연구』 17(2).
- 박사명 · 박은경 · 신윤희 · 오명석 · 전경수 · 조흥국. 2000. 『동남아의 화인사회』. 서울: 전통과 현대.
- 박사명 · 윤진표 · 전제성 · 황인원 · 김민정. 2007. 『위기극복의 정치 리더십: 동남아 4개국 정치지도자 비교연구』.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총서 1. 서울: 이매진.
- 박사명 · 황인원 · 권율 · 채수홍 · 이재현 · 전제성. 2008. 『위기에서 협력으로: 동남아 지역협력의 확대와 심화』.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총서 2. 서울: 이매진.
- 박사명 편. 2004. 『동남아 정치변동의 동학: 안정과 변화의 갈림길』. 서울: 오름.
- _____. 편. 2005.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대응』. 폴리테이아.
- 박승우. 1993. “식민지 지배하의 한국과 필리핀의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그 의미.” 『사회문화논총』 8.
- _____. 1994. “한국과 필리핀의 전후 농업의 구조변화와 산업자본주의 발전의 비교연구.” 『농촌사회』 4.
- _____. 1998a. “필리핀의 설탕과 코코넛 부문의 기원과 그 생산체제.” 『인문연구』 19(2).

- _____. 1998b. “1960~70년대 필리핀의 농업 생산체제와 농촌사회의 구조변화.” 『농촌사회』 8.
- _____. 2003a. “스페인 식민지배하 필리핀의 토착 지배계급의 형성 과정.” 『동남아시아연구』 13(1).
- _____. 2003b.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의 국가와 농업/농촌 부문간의 관계: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시장주의 모델간 비교분석의 일환으로.” 『농촌사회』 13(1).
- _____. 2006. “국가, 계급, 민족—그 역동적 상호작용: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비교연구.” 『동아연구』 50.
- _____. 2007. “필리핀의 과두제 민주주의.”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2.
- _____. 2008.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과 오리엔탈리즘.” 『동아연구』 54.
- 박은홍. 1998. “발전도상국 공공경제의 정치경제: 타일랜드 국영기업 부문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 정외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9. “동남아 경제성장의 ‘결빙’과 금융위기.” 『동남아시아연구』 8.
- _____. 2003a. “동남아시아 시민사회의 형성과 진화: 타이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3(2).
- _____. 2003b. “개방경제, 발전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국가-사회관계.” 『한국정치학회보』 37(5).
- _____. 2005. “타이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아시아의 시민사회(II)—현재와 전망』. 서울: 아르케.
- _____. 2007. “타이 민주주의의 전환.”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2.
- 박인원·이충열. 1999.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동남아 통상정책.” 『국제통상연구』 4(1).
- 박장식. 1993. “미얀마의 종족집단과 종족분쟁.” 『지역연구』 2(4).
- _____. 1995. “미얀마 까렌족의 분리주의운동.” 『동남아연구』 4.

- _____. 1996. “미얀마의 종족분쟁의 양상과 국민통합의 전망.” 『동남아시아연구』 4.
- 박종철. 1996. “통일베트남: 남북부의 갈등과 사회주의 개혁개방.” 『역사비평』 34.
- 박 희. 1999. “필리핀의 문화접변과 대중문화.” 『동남아시아연구』 7.
- _____. 2002. “필리핀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자본’의 문제.” 『아시아연구』 5(1).
- 배궁찬. 1997. “ASEAN 확대배경과 전망.” 『외교안보연구』 2.
- _____. 1998. “ASEAN 도전과 과제.” 『외교안보연구』 3.
- _____. 2001. "ASEAN+3 Regional Cooperation." *Korean Observation on Foreign Relations* 3(1).
- _____. 2003. “ASEAN+3 협력과 동아시아 정체성.” 『동남아시아연구』 13(1).
- 변창구. 1987. “아세안의 지역안보협력 연구.” 경북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9. 『아세안과 동남아 국제정치』. 대왕사.
- _____. 2002. 『아세안 운영체제론』. 대왕사.
- 서경교. 1994. “태국군부의 정치개입 원인에 관한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3.
- _____. 1999a. “필리핀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동남아시아연구』 7.
- _____. 1999b. “필리핀의 정치변동과 민주화.” 『국제지역연구』 3(4).
- _____. 2000. “민주화 이행의 이론과 실제: 필리핀의 사례.” 『국제지역연구』 4(4).
- _____. 2005. “필리핀의 민주주의.” 『동남아시아연구』 15(1).
- _____. 2007. “민주화의 위기: 태국과 필리핀의 비교연구.” 『국제지역연구』 11(3).
- 소병국. 1995. “일제하 말레이 민족의식의 발전.” 『일제하의 동남아』.

-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6. “말레이시아 민족 정체성의 확립 노력(1948-1990).” *Asia Journal* (서울대지역종합연구소) 3(1).
- _____. 1997. “말레이시아 이슬람 부흥운동의 발전과 침체(1970-97).” 『동남아연구』 6.
- 소병국·조홍국. 2004. 『불교군주와 술탄』. 서울: 전통과 현대.
- 송정남. 2001. 『베트남의 토지제도』.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 신윤환. 1993a. “현대적 형태의 원시축적: 인도네시아 재벌형성에 관한 일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7(2).
- _____. 1993b. “한국의 제3세계 투자: 동남아 진출지역의 ‘천민적’ 행태에 관한 비판.” 『창작과비평』 21(3).
- _____. 1998. “한국의 비교정치연구와 지역연구.” 이상섭·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1.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수하르토 시대의 국가, 자본, 노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2. “동아시아의 ‘한류’ 현상: 비교분석과 평가.” 『동아연구』 42.
- _____. 2004. “동아시아의 발전과 변동: 회고적 재평가.” 『동아연구』 46.
- _____. 2008. “동아시아의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편, 『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서울: 이매진.
- 신윤환·이갑윤. 2004.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결과: 인도네시아인과 태국인들의 인식 비교.” 『동아연구』 이상우·이태욱 교수 퇴임기념 특별호.
- 신윤환·이성형. 1996. “한국 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가전략』 2(1).
- 신윤환·이성형·백영서·김세걸. 2006.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 선택: 비교분석.” 『동아연구』 50.

- 신윤희 편. 2008a: 『동남아의 선거와 정치과정』. 서강대출판부.
- _____ 편. 2008b: 『동남아의 선거와 정치사회적 변화』. 서강대출판부.
- 양길현. 1996. “제3세계 민주화의 정치적 동학 비교연구: 한국, 니카라과, 미얀마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 정치학 박사논문.
- _____. 2003. “아웅산 수지의 민주화 리더십.” 『동남아시아연구』 13(1).
- _____. 2005.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과 전략.” 『동아연구』 48.
- 양승윤. 1991.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정치발전에 관한 정치사적 연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2. “동남아의 이슬람.” 『동남아시아연구』 1.
- 양승윤 외. 1998a. 『말레이시아』.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8b. 『필리핀』.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9a. 『미얀마』.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9b. 『라오스·캄보디아』.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_____. 2000a. 『동남아의 이슬람』.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0b. 『베트남』.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양종희·유석춘·박길성. 1996. 『동남아시아의 사회계층: 5개국 비교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오명석. 1993. “말레이 농촌사회의 성격과 역사적 기원.” 『동남아시아연구』 2.
- _____. 1997. “이슬람, 아닷, 근대화 속에서의 말레이 여성의 정체성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30(1).
- _____. 1999. “말레이 농촌사회의 가족농과 상속.” 『농촌사회』 9.
- _____. 2004. “말레이시아에서의 돼지고기 소비와 종족관계.” 『동남아시아연구』 14(2).
- _____. 2005. “말레이 중산층과 개혁(reformasi) 운동.” 『비교문화연구』 11(1).

- 오명석 외. 2008.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동남아연구.” 『동남아시아 연구』 18(2).
- 오명석 편. 2004. 『동남아의 지역주의와 종족갈등』. 서울: 오름.
- 오스본, 밀턴(Milton Osborne). 2000. 『한 권에 담은 동남아시아 역사』. 조흥국 외 역. 서울: 오름.
- 유석춘. 1994. “필리핀의 사회제도.” 『동남아시아연구』 3.
- _____. 1995. “말레이시아의 사회제도.” 『동남아시아연구』 4.
- 유석춘 · 김인수. 2005. “한국과 필리핀의 반미 · 친미 운동 비교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5(1).
- 유인선 외. 1998. 『싱가포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윤진표. 1996.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군부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36(2).
- _____. 1997. “변화하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 태국의 사례.” 『동남아시아연구』 5.
- _____. 2003. “태국 경제성장과정과 특징: 1997년 경제위기의 배경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7(2).
- _____. 2007. "Institutional Comparison of the State Structure in Indonesia, Thailand and Vietnam." 『한국태국학회논총』 14.
- 윤진표 · 김은영. 2001. “경제위기 대응의 정치경제.” 『동남아시아연구』 11(1).
- 윤진표 편. 2004. 『동남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전략: 회고적 재평가』. 서울: 오름.
- _____. 편. 2005. 『동남아의 구조조정과 개혁의 정치경제』. 서울: 폴리테이아.
- 윤충로. 2005. “반공독재국가형성과 국가능력 비교연구: 남베트남 지엠정권과 남한 이승만정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 이경찬. 2006. “마하티르 통치기 대미 외교정책과 말레이시아-미국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 이동윤. 2002a. “동남아시아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사례비교.”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2b. “태국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와 민주화과정.” 『동아연구』 43.
- _____. 2002c. “정통성 위기의 다차원성과 정치변동: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사례 비교.” 『국제정치논총』 42(1).
- _____. 2003. “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37(3).
- 이병도. 2000. “태국 정당정치의 변동과 제도화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2. “태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동남아시아연구』 12(1).
- _____. 2004. “태국 정당의 정치자금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4(1).
- 이수훈. 1998. “한국의 지역연구와 사회과학.” 이상섭·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요한. 2000. “동아시아 정치경제의 변동과 지역협력 방안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2. “신국제질서하의 중국·ASEAN 관계발전 전망.” 『동아연구』 43.
- _____. 2003. “동아시아 협력 이론의 분석과 적용: ASEAN+3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3(1).
- 이은호·김성주·양길현·이광철·박종철·홍규덕. 1996.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과 한-베 정치경제협력.” 『동남아시아연구』 4.
- 이재현. 2002. “UMNO의 파벌주의와 충돌하는 말레이 민족주의.”

- 『동아연구』 43.
- _____. 2006. "1990년대 말레이시아 사회의 변화와 1998년 UMNO
파벌투쟁." 『동남아시아연구』 16(2).
- _____. 2007. "마하티르와 김대중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구상 비교연
구." 『동남아시아연구』 17(2).
- 이한우. 1999. "베트남의 농업개혁정책, 1975~1993." 서강대학교 정
치학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1. "'도이 머이' 정책하 베트남 북부 농촌에서 생산조직과
통치구조의 변화." 『동남아시아연구』 11(2).
- _____. 2002a. "베트남에서의 '한류': 그 형성과정과 사회경제적 효
과." 『동아연구』 42.
- _____. 2002b. "통일 이후 베트남의 토지제도 전환과정에서 남부 농
민의 영향력." 『동남아시아연구』 12(2).
- _____. 2003. "베트남-중국 관계의 역사적 고찰." 『동아연구』 44.
- _____. 2006. "베트남의 선거제도와 국회 구성의 변화." 『동남아시
아연구』 16(1).
- _____. 2007.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시각과 이해."
『동남아시아연구』 17(2).
- 전제성. 1998. "경제성장과 정당성 사이에서: 1990년대 노사분규 폭
증과 인도네시아 정부." 『동남아시아연구』 6.
- _____. 1999. "경제위기, 정치개혁, 그리고 인도네시아 한인기업 노
동문제." 『동남아시아연구』 8.
- _____. 2002a. "민주화 이행기 인도네시아의 노동정치: 국가조합주
의의 붕괴와 노동자 리더십의 등장."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
사학위논문.
- _____. 2002b. "수하르토 치하 인도네시아에서 노동계급의 '조직화
없는 저항'." 『동아연구』 43.

- _____. 2003. “인도네시아 역사교과서의 일본점령기 평가.” 『동아연구』 45.
- _____. 2004. “인도네시아 경제위기와 노동법 개정.” 『동아연구』 47.
- _____. 2006. “한국의 동남아 연구 동향과 과제.” 『동아연구』 50.
- _____. 2007. “동남아의 참여적 지역주의와 ‘동아시아공동체’.” 『동남아시아연구』 17(2).
- 전제성·이재현. 2008. “한국의 동남아학 교육과정과 지역연구자 육성모델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8(2).
- 정연식. 1999.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조합주의: 중국과 베트남의 시민사회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3(2).
- _____. 2002. “베트남의 권리의식과 정치변화.” 『동남아시아연구』 12(1).
- _____. 2006. “캄보디아의 선거과정.” 『동남아시아연구』 16(1).
- 정영규. 1998. “인도네시아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국제경제학 박사학위논문.
- 제대식. 2003. “인도네시아 아찌 분리독립운동의 배경과 전개.” 『동남아시아연구』 13(2).
- 조영희. 2006. “정당다원주의 이후 캄보디아의 정당정치와 선거.” 인하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 조흥국. 1994. “태국과 말레이 무슬림 간의 알력에 관한 역사적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3.
- _____. 1997. “17세기 태국·캄보디아·베트남의 정치적 관계.” 『동남아시아연구』 5.
- _____. 1999. “근대 이전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 접촉에 관한 역사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8(1).
- _____. 2001. “동남아시아 연구의 문제와 과제.” 『국제지역연구』 5(1).
- _____. 2003. “일본점령기에 대한 타이인들의 역사인식.” 『동아연구』 45.

- _____. 2006. “태국의 지역 및 종족갈등에 대한 시론적 연구.” 『동아연구』 51.
- _____. 2007. 『태국—불교와 국왕의 나라』. 서울: 소나무.
- 조흥국·오명석·박사명. 1998. “동남아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상섭·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채수홍. 2003a. “호치민 시의 개혁과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비교문화연구』 9(1).
- _____. 2003b. “호치민시 다국적 공장의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6(2).
- _____. 2005. “호치민 한인사회의 사회경제적 분화와 정체성의 정치학.” 『비교문화연구』 11(2).
- _____. 2007. “귀환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삶과 동아시아 인적교류.” 『비교문화연구』 13(2).
- _____. 2008. “베트남의 주변국 인식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동남아시아연구』 18(1).
- 최경희. 2004. “정치체제 민주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동아시아 5개국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 최난경. 2002.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와 헌법개정.” 『동아연구』 43.
- 최병욱. 2000. “19세기 전반(1823~1847) 베트남의 동남아시아 관선무역.” 『동양사학연구』 70.
- _____. 2002. “19세기 중반 남부 베트남의 대외교역과 베트남 상인층의 성장.” 『동양사학연구』 78.
- _____. 2004. “까오 바 찻의 반란(1854) 원인에 관한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14(2).
- _____. 2006. 『동남아시아사: 전통시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최정욱. 2005. “선거제도, 사회구조와 정당체계: 인도네시아 1955년과 1999년 총선거.” 『동남아시아연구』 15(1).

- 최호림. 2003. “베트남의 의례활성화와 국가-사회관계.” 서울대학교 인류학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4. “베트남의 ‘유적공인’ 사업과 지방의 이질적인 공동체.” 『동남아시아연구』 14(1).
- _____. 2005. “사회주의 국가, 시장 및 '전통'의 재생: 베트남의 체제 변화와 의례활성화.” 『사회과학연구』(서강대) 13(2).
- 한국태국학회 편. 1998. 『태국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홍석준. 1993. “현대 말레이시아의 말레이 민족정체성의 문화적 의미.” 『국제·지역연구』 2.
- _____. 1997. “말레이시아 농촌의 이슬람화와 사회변동.” 서울대학교 인류학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9. “현대 말레이시아 농촌사회에서의 이슬람화와 전통의례.” 『농촌사회』 9.
- _____. 2001. “현대 말레이시아 이슬람부흥운동의 문화적 의미.” 『동남아시아연구』 11(1).
- _____. 2002. “말레이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1896-1941).” 『동남아시아연구』 12(1).
- _____. 2003. “말레이 무슬림 정체성의 역동적 성격.” 『동남아시아연구』 13(1).
- 황귀연. 1996. “베트남공산당의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 황인원. 2003. “UMNO 파벌주의와 마하티르 정치리더십의 권위주의화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7(3).
- _____. 2008. “확대 지향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아세안의 인식과 대응.” 『동아연구』 54.
- AUN (ASEAN University Network) and KASEAS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eds.). 2000. *Economic Crisis in Southeast*

Asia and Korea: Its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Impacts
Seoul: Tradition and Modernity.

- Bae Geung-Chan. 1988. "International Impacts on the Formation of Modern Authoritarian States in East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Korea,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Ph.D. dissertation,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USA.
- Chae Suhong. 2003. "Spinning Work and Weaving Life: The Politics of Production in a Capitalistic Multinational Textile Factory in Vietnam." Ph.D. dissertation, City University of New York, USA.
- Cho Hungguk. 1993. "Die politische Geschichte Thailands unter der Herrschaft König Narais." Ph.D. Dissertation, Universität Hamburg, Germany.
- _____. 2000. "The Trade between China, Japan, Korea and Southeast Asia in the 14th through the 17th Century Period." *International Area Review* 3(2).
- Cho Youn-Mee. 2005. "Mob Justice Actions in Java: A Study of Vigilantism in the Era of Indonesian Reform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as Gadjah Mada, Indonesia.
- Choi Byungwook. 1999. "Southern Vietnam under the Reign of Minh Mang, 1820-1841." Ph.D. dissertation,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_____. 2003. "Vietnamization of Southern Vietnam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Asian Ethnicity* 4(1).
- Choi Dong Ju. 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s Involvement in the 2nd Indochina War." Ph.D. dissertati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London.
- Choi Jungug. 2001a. "Economic Crisis, Elite Cooperation, and Democratic Stability: Asia in the Late 1990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 of Texas-Austin, USA.
- _____. 2001b. "Philippine Democracies Old and New: Election, Term Limits and Party Systems." *Asian Survey* 41(3).
- _____. 2003. "Ethnic and Regional Politics after the Asian Economic Crisis: A Comparison of Malaysia and South Korea." *Democratization* 10(1).
- Choi Nankyung. 2004. "Democratisation, Decentralization, and Local Party Politics in Post-Soeharto Indonesia." Ph.D. dissertation,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Hwang In-Won. 2001. "Changing Conflict Configuration and Regime Maintenance in Malaysian Politics: From Consociational Bargaining to Mahathir's Dominance." Ph.D. dissertation,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_____. 2002. "Authoritarianism and UMNO's Factional Conflict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2(2).
- _____. 2003. *Personalized Politics: The Malaysian State under Mahathir*. Singapore: ISEAS.
- Jeon Je-guk. 1990. "The Political Economy of Micro-Variation in East Asian Development Patterning: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Taiwan, Singapore and Thailand." Ph.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Jeong Yeonsik. 1997a. "Interest Representation in Socialist Market Economies: A Comparative Study of Civil Society in China and Vietnam."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USA.
- _____. 1997b. "The Rise of Corporatism in Vietnam." *Contemporary Southeast Asia* 19(2).
- Kang Yoonhee. 2002. "Words of the Ancestors, Words for Survival: Marginality, Emotion, and the Power of Magical Words among the Petalangan of Riau, Indonesia."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 _____. 2003. "The Desire to be Desired: Magic Spells, Agency and the Politics of Desire among the Petalangan People in Indonesia." *Language and Communication* 23(2).
- _____. 2006. "'Staged' Rituals, 'Veiled' Spells: Multiple Language Ideologies and Transformations in Petalangan Verbal Magic." *Journal of Linguistic Anthropology* 16(1).
- Kang Young Soon. 2002. "Antara Tradisi dan Konflik: Kepolitikan Nahdlatul Ulama, 1984-1999 [나흐다뿔 올라마(NU)의 정치성, 1984-1999: 전통과 갈등을 중심으로]." Ph.D. dissertation, Universitas Indonesia.
- Kim Dong-Yeob. 2002. "The Politics of Market Liberalizati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Korean and Philippine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dustrie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4(2).
- _____. 2003a. "The Political Economy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 Liberalization: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the Philippin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Quezon City, Philippines.
- _____. 2003b. "Economic Liberalism and the Philippine Telecom Industr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3(4).
- Kim Hyung-Jun. 1996. "Reformist Muslims in a Yogyakarta Village: The Islamic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Socio-Religious Life." Ph.D. dissertation,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_____. 1998a. "Unto You Your Religion and Unto Me My Religion: Muslim-Christian Relations in a Javanese Village." *SOJOURN: Social Issues in Southeast Asia* 13(1).
- _____. 1998b. "Changing Concept of Religious Freedom in Indonesia."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29(2).

- Kim Jongkil. 1992. "Relevance of the East Asian NICs' Development Experience to ASEAN Countries." *Pacific Focus* 7(3).
- _____. 1997. "South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and Implications for Southeast Asia." In *ASEAN and Korea: Trends in Economic and Labour Relations* Singapore: ISEAS.
- _____. 1999. "Economic Growth of ASEAN in the Context of East Asian Development." In *The Global Integration of Europe and Asia*. Edward Elgar.
- Kim Sung-Joo. 1986. "The Great Power Triangle and Southeast Asian Security, 1975-1984." Ph.D.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USA.
- Kim Ye-kyoum. 2003a. "Living form Hand to Mouth Provided There is Happiness: Life-Dynamics of Tomohonese Women, Minahasa, North Sulawesi, Indonesi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ull, UK.
- _____. 2003b. "A Critical Review of Clifford Geertz's Interpretation of Javanese Religion." 『동아연구』 45.
- _____. 2004. "The Structural Analysis of the Hindi and Southeast Asian Versions of Indian Epic, Ramayana." *Antropologi* (Universitas Indonesia) 28(75).
- Kim Ye-kyoum and V. T. King. 2004. "Regional Development Programmes and the Life-Dynamics of Women on an Eastern Indonesian Island." *SOJOURN: Social Issues in Southeast Asia* 19(2).
- Ko Woo-Seong. 1990. "Government Policies, Foreign Capital, State Capacity: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Indonesia and Malaysia." Ph.D. dissertation,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USA.
- Kwon OhShin. 1992. "Dwight D. Eisenhower and the Philippines,

- 1935-1960."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Quezon City, Philippines.
- Lee Jaehyon. 2005. "UMNO Factionalism and the Politics of Malaysian National Identity." Ph.D. dissertation, Murdoch University, Australia.
- Lee Sang Kook. 2007. "Integrating Others: A Study of a Border Social System in the Thailand-Burma Borderland." Ph.D. dissertation,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McVey, Ruth. 1998. "Globalization, Marginalization, and the Study of Southeast Asia." In C. J. Reynolds and R. McVey, *Southeast Asian Studies: Reorientations*, pp. 37-64. Ithaca, NY: South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 Milner, Anthony. 1999. "Approaching Asia, and Asian Studies, in Australia." *Asian Studies Review* 23(2).
- Nho Young Soon. 2000. "A History of the Indochinese Communist Party, 1930-1936."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UK.
- Oh Myungseok. 1994. "Other Malay Peasants: Making of Rubber Smallholders in Johor, Malaysia." Ph.D. dissertation, Monash University, Australia.
- Park Innwon. 1993. "Static, Dynamic, and Trade-linke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Estimation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 ASEAN Illustr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A.
- _____. 2006. "East Asian Regional Trade Agreements." *Pacific Economic Review* 11(4).
- Park Innwon and Kwon Yul. 2007. "Regional Trade Arrangement between ASEAN and Korea." In *ASEAN-Korea Relations: Security, Trade and*

Community Building Singapore: ISEAS.

- Park Innwon and Lee Choong-Lyul. 2000. "Bank Restructuring and Its Performance in East Asia." In AUN and KASEAS (eds.), *Economic Crisis in Southeast Asia and Korea: Its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Impacts*. AUN and KASEAS.
- Park Innwon and Lee Jong-Wha. 2005. "Free Trade Areas in East Asia." *The World Economy* 28(1).
- Park Kie-Duck. 1993. "Fading Reformism in New Democracy: A Comparative Study of Regime Consolidation in Korea and the Philippin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USA.
- Park KwangSeop. 1995. "The Response of ASEAN and Its Member Countries to the Challenge of Global and Regional Changes Created by the Post-Cold War Er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anto Tomas, Philippines.
- Park Sa-Myung. 1988. "The State, Revolution and Development: A Comparative Study of Transformation of the State in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Ph.D.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USA.
- Park Sa-Myung and Supachai Yavaprabhas (eds.). 2003. *Regional Cooperation and Identity Building in East Asia*. Seoul: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 Park Seung Woo. 1991. "Agrarian Transformation and Colonialism in the Context of Capitalist Development: An Historical-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the Philippin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USA.
- _____. 1998. "The State and Social Classes in Korea and the Philippines." *Thammasat Review* 3(1).

- Park Seung Woo and G. P. Green. 1995. "Agricultural Restructuring and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The Cases of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Kasarinlan: Philippine Quarterly of Third World Studies* 11(1/2).
- Seo KyoungKyo. 1993.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and the Prospects for Democracy: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South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USA.
- Shin Yoon Hwan. 1989. "Demystifying the Capitalist State: Political Patronage, Bureaucratic Interests, and Capitalists-in-Making in Soeharto's Indonesia."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USA.
- _____. 1991. "The Role of Elites in Creating Capitalist Hegemony in Post-Oil Boom Indonesia." *Indonesia*. Ithaca, NY: South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
- _____. 1995a. "Korea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25(2).
- _____. 1995b. "Rethinking Indonesia-South Korea Relations." In *ASEAN and South Korea: Emerging Issues in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Singapore: ISEAS.
- Shin Yoon Hwan and Chayachoke Chulasiriwongs (eds.). 2005. *Relations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 in the Past*. Bangkok: ASEAN University Network (AUN) and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KASEAS).
- Soh Byungkuk. 1993. "From Parochial to National Outlook: Malay Society in Transition, 1920-1948." Ph.D. dissertation, Ohio University.
- Song Jungnam. 1996. "Lang Yen So tu truyen thong den do moi va so sanh voi nhung bien doi o nong thon Han Quoc [전통에서 도이

- 머이까지: (베트남) 옌 서 마을과 한국 농촌의 변화와의 비교]." Ph.D. dissertation, Hanoi National University, Vietnam.
- Suehiro, Akira. 1999. "A Japanese Perspective on the Perception of 'Aja': From Eastern to Asian Studies." *Asian Studies Review* 23(2).
- Yoon Jinpyo. 1990.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Modern State: A Comparative Study of the Nature and Role of the State in Indonesia, Thailand and Vietnam."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USA.
- Youn Dae Yeong. 2007. "The Reformist Ideas and Movements in Korea and Vietnam, 1897-1911."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aris VII, France.

(2008. 11. 11 투고; 2008. 12. 26 심사; 2009. 1. 17 게재확정)

Abstract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Focusing on the Second-Generation Southeast Asianists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s

Seung Woo Park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is an inquiry into the Korean researchers specializing in the study of Southeast Asia. It attempts to examine who they are and what they are doing and have done as part of their research. It divides Korean specialists in Southeast Asian studies into two groups or generations: the first generation of Southeast Asianists who began their academic career as a researcher in Southeast Asian studies prior to the late 1980s, on the one hand, and the second group/generation beginning their academic research career after that period, on the other. This study focuses on the second-generation Southeast Asianists in various fields of social sciences such as political science, anthropology, economics, and sociology as well as in history. Moreover, it further divides the 2nd-generation Southeast Asianists into three cohorts and attempts to analyze the between-cohort differences.

First of all, this study analyzes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ccupational statuses and institutional affiliation, academic background (schools and majors), research interests, and research activities (areas of specialty and themes of research) of the 2nd-generation Korean Southeast

Asianists. It also identifies the differences in these characteristics among three different cohorts.

This study also makes a retrospective reappraisal of the researches done by the 2nd-generation Korean Southeast Asianists in the fields of social sciences. It tries to trace the trend and trajectory of their research activities, comparing them in three different periods: the early 1990s, the late 1990s, and the 2000s.

Key Words: International Area Studies, Southeast Asian Studies, Southeast Asianist, Southeast Asiology